인천주보

제2856호
2024년 12월 8일 | 대림 제2주일 (인권 주일, 사회 교리 주간)
발행 천주교 인천교구 발행인 정신철 편집 천주교 인천교구 홍보실
주소 22573 인천광역시 동구 박문로 1 이메일 hongbo@caincheon.or.kr

우리 본당 가족사진 〈인천가톨릭대학교 성김대건 성당〉, 2021년 설립

입당송 | 이사 30,19.30 참조

보라, 시온 백성아. 주님이 민족들을 구원하러 오신다. 주님의 우렁찬 목소리를 듣고, 너희 마음은 기쁨에 넘치리라.

제1독서 | 바룩 5,1-9

화답송 | 시편 126(125),1-2ㄱㄴ.2ㄷㄹ-3.4-5.6(◎ 3 참조)

◎ **주님이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겝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제2독서 | 필리 1,4-6.8-11

복음 환호송 | 루카 3,4.6

◎ **알렐루야.**

○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

복음 | 루카 3,1-6

영성체송 | 바룩 5,5; 4,36

예루살렘아, 일어나 높은 곳에 서서, 하느님에게서 너에게 오는 기쁨을 바라보아라.

이주의 **녹색순교** 난방 덜 올리고 옷 더 껴입기

소리주보 QR

인권 주일: 인간 – 하느님의 모상(模像)

단상 1: 오늘은 '교회가 정한' 인권 주일입니다. 사실 '인권(人權)'이라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생각하며 살아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편하게 대통령을 '이놈 저놈'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물론 여기까지 오는 동안 선배들이 흘린 피와 눈물 덕분임은 분명한 사실-굳이 우리나라의 인권이 문제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팍팍한 현실은, 우리의 인권도 여기저기서 상처가 곪아 터지고 그래서 아파 울부짖는 소리를 어렵지 않게 듣게 됩니다. 총알 배송으로 대표되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밥을 먹는 것은 고사하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뛰어다녀야 하고, 가족들과 단란히 쉴 집 한 칸을 지켜내기 위해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해내야 하며, 이제는 동료 인간은 고사하고 인공지능(AI) 로봇과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하는 현실은 '하느님의 모상(模像)'으로서의 자부심을 깎아내리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단상 2: 몇 년 전 어머니를 모시고 네팔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연로하시기도 하였고, 허리도 불편하신 때라 산행은 접고 시내 이곳저곳을 다니며 사람 사는 모습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빈민가를 둘러보시고는 "6.25 전쟁 끝나고 우리나라를 보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다 찢어진 천막으로 얼기설기 엮은 벽과 지붕, 벽으로 불어 드는 한기를 막기 위해 하수구의 썩은 흙을 개서 벽에 미장을 한 집에서 서너 명의 아이들과 지내는 '능력 없는' 젊은 엄마. 맨발에 누더기를 입고, 그래도 친구가 있으니 좋다고 깔깔대고 뛰어다니며 놀다가 우리 일행을 발견하고 달려와 동전푼을 구하는 아이들을 보는 마음은 심란의 정도를 넘어 죄스러웠던 기억.

단상 3: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던 80년대 중반. 세상은 혼란스러웠고 격동했습니다. 인권은 짓밟히고 오직 폭력적인 권력과 세상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돈만이 최고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교회는, 그 혼란과 격변의 폭력이 휩쓰는 거리에서 십자가를 앞세우고 사람들의 방패와 은신처가 되어주었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예언자가 되어주었습니다. 그 모습에 사람들은 의지했고 환호했으며 그래서 교회로, 교회로 찾아들었습니다. 신학교는 사제직을 희망하는 젊은이들로 넘쳐났고, 미사 시간은 신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40여 년이 지난 지금, 교회는 정반대의 상황에 당황하며, 타개책을 찾겠다고 분주합니다.

오늘 복음은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굽은 데는 곧아지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되어라.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루카 3,4-6)는 요한의 선언을 전합니다.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과 언덕이 낮아지고, 굽고 거친 길이 평탄해져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보게 될 터인데, 그러려면 깎아내고 갈아내고 뒤집어엎어야 하는데! 사실 모든 사람의 구원은 별 관심도 없이 그저 내 앞일 헤쳐나가기도 버겁게 느껴지는 상황에서 그게 가능할까!

'하느님의 모상(模像)'이라는 인간! '교회가 정한' 인권 주일이라는데… 착잡하고 답답한 묵상만이 남습니다.

이범석 아우구스티노 신부
교구 생명사목부 부국장

희년의 의미와 희망

김원영 프란치스코 신부 | 교구 사무처부처장, 전산·홍보실장

2025년은 교회 전통에 따라 교황님께서 선포하신 성년, 즉 희년입니다. 교회는 25년마다 희년을 선포하며, 이 기간 동안 신자들이 하느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새로운 영적 출발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합니다. 희년은 하느님의 은총과 자비를 다시 한 번 깊이 경험하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다듬는 시간이 됩니다. 이번 2025년 희년의 주제는 ‘Spes non confundit’, 즉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로마 5,5)라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번 희년이 모든 신자들에게 희망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교황님께서 강조하시는 희망은 단순한 미래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하느님께 대한 굳건한 신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가 삶에서 겪는 어려움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하느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분의 계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에 바탕을 둡니다. 신앙생활에서 희망은 매우 중요한 덕목이며,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교황님은 이번 희년이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깊은 만남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시며, 그분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과 구원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황님은 신자들이 순례를 통해 희년을 기념할 것을 권고하고 계십니다. 로마로의 순례는 희년 동안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며, 신자들이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정신을 다시금 되새길 기회가 됩니다.

그러나 로마에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신자들도 각 지역 교회에서 이 희년을 경축하며 하느님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어디서든 만날 수 있으며, 그분의 자비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부르시며, 그분의 은총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집니다.

희년은 또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느님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고, 그분과의 깊은 만남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바오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성령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로마 5,5 참조) 우리는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희년은 희망이라는 덕목을 통해 하느님께 대한 신뢰를 새롭게 다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교황님은 우리가 희망과 믿음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체험하고,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몸소 희망의 징표가 되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인은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믿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희년을 보내며 희망에서 시작에 믿음, 사랑으로 이어지는 향주삼덕의 삶을 체득하고, 하느님의 자비를 깊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깔깔수녀님

내가 만난 나의 하느님

이은숙 카타리나 | 마전동 본당

그 당시에는 완전 시골이었던 양곡에서 인천의 가톨릭 학교로 진학한 저는, 집안에 성당 다니는 사람은 먼 친척조차도 없는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6년 동안 교정에 있는 성모상 앞에서 치러지는 성모의 밤 행사도 저에게는 별 의미를 모른 채 넘기는 그냥 학교생활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한 지 7년 만에 세례를 받았는데, 어떤 계기였는지 지금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하신 2번의 프러포즈 덕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성당을 아는 사람이라곤 하나도 없는 외인하고 결혼하게 됐지요. 저에게 결혼 이후의 삶은 바쁜 직장생활과 더불어 육아까지 신경 쓰느라 정신이 없었고, 그래서 친정엄마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법 없이도 살 분이라고 하는 친정엄마는 인품도 좋으시고 아이들에게도 올바른 길을 안내해 주시며 열정적으로 저를 도와주셨지만, 때로는 다소 지나치게 미신을 좋아하셨습니다. 그 당시 어르신들은 대부분 그러셨다고 하지만, 신앙의 삶을 살고 싶었던 저에게 아이가 아파도, 집안에 무슨 일이라도 있으려고 하면 무당에게 무사 안녕을 빌어 달라고 전화하시는 친정엄마의 모습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한 집에서 두 종교는 있을 수 없다는 친정엄마의 말씀에 그 이후 저는 10년 넘게 냉담하게 되었고, 자연스레 성당으로 향하는 길이 멀어졌습니다.

점차 시간이 흘러 친정 부모님 두 분 다 세상을 떠나시고, 그동안 발길이 멀어졌던 성당으로 어느덧 돌아오게 된 저는 앞으로 새롭게 다시 믿을 하느님을 잘 알고 싶어 성경 공부를 먼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당 안에서의 소공동체 활동, 피정, 철야기도, 교육, 성지순례 등 제 신앙의 목마름을 적셔 줄 만한 모든 프로그램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 갈증과 결핍을 어느 정도 해소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역설적으로 제 앞에 큰 장벽이 가로막혀 숨을 조이는 듯한 답답함을 느끼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제 마음은 무엇일까요?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은 무엇일까요? 저는 다시금 주님을 만날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아기 예수의 성녀(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의 영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외부에서 주님을 찾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교육받고 주변 환경에 부딪히며 형성된 나(거짓 자아)를 벗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 안에 심어 주신 하느님의 모상(참 자아)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집중한 순간, 지금까지 나로 알고 살아온 거짓 자아는 곧 주님의 존재는 무시한 채 자만하며 교만하게 살아온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성전 정화 말씀처럼 모든 장사꾼과 환전상들을 마음속에서 내쫓고 마지막에는 힘세고 난폭한 사람들이나 하는 행동-탁자를 들어 엎기-까지 해야만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의 심연에 있는 미움, 시기, 질투, 교만, 탐욕, 불만, 이기심 등의 감정 쓰레기들을 청소하려는 과감한 결단력과 용기가 있어야 비로소 내 안에 계신 하느님과 대면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지어 주신 모습과 더 많이 닮으려고 노력하면, 그래서 이 본래의 하느님 모상과 일치하면 참으로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옛 인간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 버리고 새 인간을 입은 사람입니다. 새 인간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모상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면서 참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콜로 3,9-10)

어느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는 신을 찾아 먼 길을 떠났다. 결국 다 포기하고 되돌아왔을 때 신은 바로 거기에, 내 안에 있었다."

나의 신앙 여정 속에서 잠시 성당과 멀어졌던 시간도 있었고, 힘들었던 고통의 순간도 있었으나, 믿음이 부족했던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저의 어두움과 나약함, 불신을 없애 주신 주님은 영원히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아멘.

제4회 인천교구 1945 창작생활성가제

교구 홍보기자 문영근 안드레아

11월 24일(주일) 청소년사목국(국장 최인비 유스티노 신부), 가톨릭문화원(원장 박유진 바오로 신부)은 청년1945 창작생활성가제를 교구청 보니파시오 강당에서 진행하였다. 예심을 거쳐 총 7개팀(희망의 빛-김수경 소화데레사, 청원-피아트룩스, 도토리숲-도토리군단, 광야 속에 피어난-허정회 세실리아, 선택-엘피다, The VoicE-주찬찬, 희망의 날개-블리스밴드)이 최종 참가하였다. 경연의 시작을 알리는 축하 영상 메시지를 통해 교구장 정신철 요한 세례자 주교는 "여러분이 부르는 노래 안에서 하느님을 찬양하고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전해준다는 마음으로 성가를 부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하였다. 1부에서는 7개팀이 경연을 겨루었고, 20분 동안 심사위원 점수 집계와 인기상 투표를 진행 후 2부에서는 찬조출연으로 교구 청년 반주팀 청년밴드 1945의 '희망(최섭)', 제3회 성가제 대상곡인 이진 마태오의 '꽃봉오리', 인천교구 사제중창단 위로의 '희망(한덕훈)'과 '천년도 하루같이 하루도 천년같이'로 무대를 장식하였다. 참가자 단체곡으로 창작생활성가제 메들리곡을 불러주었다. 이 날 경연에서 인기상은 해안 성당의 블리스밴드가 차지했으며, 우수상은 주찬찬의 "The VoicE", 최우수상은 허정희 세실리아의 "광야 속에 피어난", 대상은 블리스밴드의 "희망의 날개"가 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상팀 블리스밴드의 앵콜무대로 창작생활성가제 경연을 마무리 지었다. 창작생활성가제 본선 진출 7팀의 노래는 모두 음원으로 발매 되어 음원사이트에서 들어볼 수 있다.

노인대학 성경봉사자 교육, 교리교육 종강 미사

교구 노인사목부

2일(월) 교구 노인사목부(부국장 장기용 요한 세례자 신부)는 박순집 베드로 홀에서 노인대학 성경봉사자 교육과 교리교육 종강 미사를 봉헌하였다. 두 프로그램은 9월 22일에 개강하여 매주 월요일 12주간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노인대학 성경봉사자 교육은 41명이 수료하였으며, 노인대학 교리교육은 12명이 수료하였다. 특별히 이번 노인대학 교리교육 과정에서는 지난 3년간 6학기를 수료하고, 자격증을 수여받는 3명의 봉사자를 처음 배출하였다. 두 과정의 종강 미사에서 장기용 신부는 "하느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른 이를 미소짓게 하자"며, "초심을 잃지 말고 나만 즐거운게 아니라 봉사를 통하여 타인을 미소 짓게하는 봉사를 하자"고 축하와 격려를 전하였다.

제43회 인권 주일
제14회 사회 교리 주간(12/8~14)

| 담화문과 교육 영상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입니다"(1코린 12,19)

2024년 제43회 인권 주일, 제14회 사회 교리 주간 담화 中

| 기념미사와 세미나

주 제 가톨릭 사회교리의 이해와 실천
일 시 2024년 12월 8일(주일) 14:00~18:00
장 소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1층 강당
문 의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02-460-7622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02-727-2249

유튜브 생중계

'믿음과 은총' 코너에 실릴 사진과 일상 신앙 수기를 모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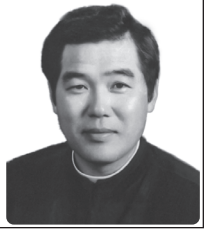
익명으로도 게재가 가능하며, 띄어쓰기 포함 1,600자 분량의 원고(A4)를 hongbo032@daum.net으로 첨부하여 보내주시면 선정 후 주보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주에 기억해야 할 선종사제

(메)변 로이
1977.12.06 선종

김상용 힐라리오
2023.12.08 선종

(파)전 에우제니오
1947.12.09 선종


이근창
F.하비에르
1996.12.12 선종

교구청

12월 예비신학교 모임
일시: 12/15(주일)
11:00 중1, 중2, 신학과지원반
14:00 중3, 고1, 고2
장소: 대건고등학교

12월 김포 · 강화지구 예비신학교 모임
일시: 12/15(주일) 13:30
장소: 김포 성당
대상: 중1~고2

평화대화 진행자 양성교육
비폭력대화법 1단계
일시: 25/1/4, 11, 18(토) 10:00~17:00
장소: 노동자센터(경인로671)
회비: 15만원(교재비 포함)
신청: 032-765-6970

552차 카나혼인강좌
일시: 25/2/16(주일) 13:30~18:30
장소: 복자 이안나 홀
문의: 032-762-8888 가정생명사목부

교육 | 미사

예수회센터 겨울방학 특강
일시: 25년 1월 개강 [각 6~8주]
·구약성경 아카데미-모세의 삶과 신앙: 주원준 박사
·구약으로 만나는 하느님의 여러 얼굴들: 김민 신부
·영성과 심리의 통합 세 번째 길: 최지원 수녀
·명화로 만나는 그리스도교 영성: 박혜원 강사
현장 강의 또는 동영상 강의 선택 수강
문의: 02-3276-7733
http://center.jesuits.kr/

제주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 성지, 역사, 생태순례와 성무일도,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순례
한라산 눈꽃산행 포함: 25/1/17~19, 23~25, 25/2/8~10, 14~16, 25/2/22~24
연말연시: 12/30~25/1/2(한라산 눈꽃산행)
성지순례(추자도 포함): 25/3/1~4, 9~12
문의: 064-756-6009,
02-773-1463(제주자연피정)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피정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쉼과 성지순례, 제주여행과 자연순례(2025년 피정접수 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한라산 눈꽃산행: 25/1/11~13, 16~18, 25/1/20~22, 24~26, 25/2/7~9, 15~17(제주T/S), 25/2/25~27
연말연시(한라산, 해넘이, 해돋이): 12/29~25/1/1
문의: 064-796-4182,
02-773-1455(제주자연피정)

골롬반 청년 대림 피정
일시: 12/14(토) 10:00~17:00
장소: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대상: 23~34세 신자
신청: bit.ly/골롬반청년피정12
참가비: 1만원(현장납부, 점심식사 포함)
문의: 010-5033-9302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청주 초정성령회관 철야기도
일시: 매주(금) 21:00~(토) 3:00
강사: 전국 유명강사
버스: 19:00 출발 조치원역 신한은행 앞
19:20 출발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맞은편
문의: 043-213-9103,
010-5482-6744

토아올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일시: 매주(화) 12:30~16:00
장소: 명동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종국 신부
강사: 12/10 김재덕 신부
문의: 010-5514-4077 회장

성 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
성경완독: 25/1/2(목)~10(금), 2/14(금)~22(토)
장소: 횡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
문의: 010-3340-0201

노틀담 청년 송년피정
일시: 12/27(금) 20:00~29(주일) 15:00
장소: 서울 노틀담교육관
대상: 35세 이하 미혼 남·녀 청년 15명
참가비: 8만원
문의: 010-3930-6730

일상생활 속의 영신수련(부천)
개인 또는 소그룹 가능
장소: 도움이신 마리아 수녀회(부천)
문의: 010-2029-0335

글라렛선교수도회 인천후원회 월례미사
일시: 12/9(월) 14:00
장소: 국제성모병원 장례예식부 B2
문의: 02-743-7026, 010-7764-6031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일시: 12/10(화) 14:30 부평2동 성당
문의: 032-529-9621

가톨릭문화원 상설 음악피정미사, 무료 콘서트
일시: 매주(주일, 목) 14:00
장소: 가톨릭문화원 아트센터
(김포시 하성면 월하로 970-18)
버스운행: 13:30 장기역 3번 출구
버스정류장 옆 공영주차장
문의: 1577-3217

제3기 교회문화유산 해설사 양성과정 수강생 모집

인천교회사연구소, 천주교인천교구역사박물관, 인천가톨릭대학교 그리스도교미술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천주교인천교구 교회문화유산 해설사** 3기 양성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과정 수료 후 교구 공인 해설사 자격증이 발급되며 교구 내 박물관, 순례지 등에서 해설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인천교회사연구소 천주교 인천교구 역사박물관 IOCA 그리스도교 미술연구소

모집 | 일반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위치: 인천 서구 드림로 472 천주교 인천교구 묘원
(2025년 상반기 준공 예정)
접수: 인천교구청 방문 및 온라인 접수
서류: 교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기간: 60년(30년 봉안 후 30년 연장 가능)
봉헌금: 400만원, 500만원
문의: 032-765-7251
http://haneul.caincheon.or.kr

이승훈 베드로 성지 '기도의 벽', '추모의 벽' 신청
성지 성전에 지향자 성명 각인 1인당-1백만원
10년 동안 매달 1회 미사봉헌
문의: 032-765-6916 인천교구 성지위원회

이승훈 베드로 성지 기념관 관리장 모집
자격: 자격증 소지자 우선(전기, 소방, 가스)
서류: 이력서, 교적 사본, 본당 사제 추천서
문의: 032-765-6916

부개2동 성당 사무장 모집
조건: 한글, 엑셀가능자
서류: 이력서, 교적 사본, 본당 사제 추천서
문의: 032-505-2048 사무실
bugae2@caincheon.or.kr

서운동 성당 사무장, 관리장 모집
·사무장-문서관리, 교회 행정업무 및 오피스 가능자
·관리장-소방, 가스안전, 전기기술 경력자 우대
서류: 이력서, 교적사본, 본당사제 추천서
접수: 사무실 방문 제출 또는 이메일
seoun@caincheon.or.kr
문의: 032-553-6573 서운동 성당 사무실

주안7동 성당 관리장 채용
서류: 이력서, 교적사본,
본당사제 추천서, 1종 면허 소지자
접수: 12/20(금)까지
문의: 032-263-5004

25년도 한길(야학)고 신입생 모집
야학! 만학의 꿈을 함께 일궈요(고졸 검정고시 준비)
·신입생 모집: 2년제, 나이 제한 없음, 학비와 교재 무료
·신임교사 채용: 윤리, 미술
장소: 주안5동 성당
문의: 010-8348-0998 교감

꼬메스심리상담소(도미니코수도회)
가족, 부부, 갈등, 심리, 영적성장
상담을 통한 치유와 성장이 있는 따듯한 동행
방법: 대면, 온라인, 전화 모두 가능
문의: 010-3201-0520 상담자 노경덕 신부

가톨릭여성심리상담소 '심리, 가족갈등 전화상담'
일시: (월~금) 10:00~16:00
문의: 02-990-9366

해외 가톨릭 사립학교 학생 모집
대상: 초5~고2, 미국, 아일랜드, 단기 가능
그리스도 레지오회 해외학교법인
문의: 02-2258-8983, oakinternational.co.kr

인천교리신학원 25년 신입생 모집
평신도 교리, 신학, 성경 교육과정
정원: 정규(2년) 30명, 심화(1년) 25명
문의: 032-830-7137, ds.iccu.ac.kr

25년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신학과정
가톨릭 신학 전반 26과목
대상: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원서접수: 11/11(월)~25/2/14(금)
문의: 02-745-8339, http://ci.catholic.ac.kr

바오로딸 성경학교 신입생 모집
과정: 입문, 중급, 성바오로 신학영성 중 선택
방법: 우편과 이러닝(동영상 강의) 성경공부
원서: https://uus.pauline.or.kr (25/1/31 마감)
문의: 02-944-0819~23

포센티 글방(예수고난회)
하느님을 향한 책읽기와 글쓰기-비대면(Zoom) 모임
일시: 매달 2, 4주(수) 20:00~22:00
대상: 40대 초반 이하의 미혼 남·녀
문의: 010-9503-1127

박원희 사라 그림전시회
성 프란치스코와 그의 친구들
일시: 12/9(월)~18(수) 10:00~18:00
장소: 인천 바오로딸서원 갤러리
문의: 032-765-5830

순례 | 기타

전국167, 제주 3박 4일, 베트남, 일본, 마카오 성지순례
매월 출발: 35만원 / 120만원
문의: 010-4239-1929

25년 이탈리아 순례, 작은형제회
78차: 25/3/19~31 550만원
79차: 25/6/10~22 560만원
이탈리아 로마, 아씨시 외 프란치스칸 성지
작은형제회 이스라엘성지 한국대표부
문의: 010-9704-9495
www.terrasanta.kr

미리내천주성삼성직수도회 성지순례
일시: 25/4/24~5/5 성모발현지 520만원
문의: 010-7374-3217

국내·외 성지순례
12/14~15 마산교구: 윤봉문 성지 외 5곳
12/16~25 미 서부일주
25/1/8(수)~9(목), 25(토)~26(주일)
부산교구 김범우 성지 외 7곳
25/2/24(월)~3/6(목) 대희년 이탈리아 성지순례
문의: 010-9200-3532

해외 성지순례
25/2/8 성모 발현지(아시아나) [12일] 545만원
25/3/9 파티마, 스페인, 루르드 [12일] 460만원
25/3/11 동부유럽 4개국 [11일] 395만원
문의: 02-2281-9070, www.cttour.org

한티 가는 길(도보순례)
일시: 12/18~20 [2박 3일]
장소: 왜관수도원 문화영성센터
강사: 류 에프렘 수사 / 참가비: 25만원
문의: 010-6791-0071

해외 성지순례
2025년 동반자 1백만원 할인 이벤트
25/3/17 이탈리아, 알프스, 프랑스 [11일]
25/3/17 유럽 4개국 성모 발현지 [12일]
25/4/22, 5/6, 13, 20 이탈리아 일주 [11일]
25/5/19 멕시코, 페루, 아르헨티나, 브라질 [13일]
문의: 010-5235-3533 가톨릭회관 619호

국내·외, 제주도 성지순례
25/1/21 태국, 파타야 [5일]
25/2/6 스페인, 포르투갈 [12일]
25/3/24 발칸, 메주고리예 [12일]
25/4/21 성모 발현지 4국 [12일]
제주성지순례 6명부터 출발
문의: 010-8650-9690
www.michaeltour.co.kr

신청안내

접수기간 2024/12/9~2025/1/19
구비서류 자기소개서(사진 부착 필), 지원동기서, 교적 사본 제출
·모든 서류 별도 양식 없음
신청방법 이메일(storiain@caincheon.or.kr) 또는 우편
(인천시 동구 박문로1 인천교구청 청소년센터 203호 인천교회사연구소)
수 강 료 30만원(원서접수, 선발심사 후 등록 확정 후 입금)

강의안내

일시 2025/3/7~5/23 19:00 매주(금) [총 13강]
장소 천주교인천교구역사박물관
대상 사제, 수도자, 평신도 20명 내외
문의 천주교인천교구역사박물관 032-765-6931
인천교회사연구소 032-765-7257,
010-8367-7257